

對중국 교류 강화를 위한 제주의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지 형

1. 들어가며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을 토대로 경제협력 및 교류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했으며,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의 G-2로의 부상은 향후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제교류의 추진 주체는 정부 위주에서 지방정부 등의 개별주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의 해결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제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관광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웃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도로서 '세계속의 제주'를 지향하는 제주도 차원에서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중국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제주의 對중국 교류 현황

1)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현황

한·중 관계는 1992년 8월 24일 수교 당시 ‘우호협력관계’를 시작으로, 1998년 ‘21세기 협력 동반자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되면서, 양국 간 교류의 범위와 대상이 대폭적으로 증대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이런 한중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중국 간의 교류협력관계로도 이어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 또한 중국과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중국의 지방정부들과 다각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남성과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은 후 2010년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3곳의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와의 우호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총 9건의 우호협력교류를 체결하여 교류 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세대 글로벌리더와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의 섬 제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도 교육청과 함께 2010년부터 매년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10년 10월 아시아 청소년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제1회 포럼이 개최된 이래,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 각 성·시의 참석도도 높아지고 있다.¹⁾ 하지만 단순 상호방문, 인적·행적 교류에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중국진출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표 1〉 제주도 및 제주시, 서귀포시의 중국 지방정부간의 자매·우호협력 체결현황

No	구분	중국 지방정부	체결일자	비고
1	제주도	중국 해남성	1995.10.06	자매
2		중국 대련시	2001.03.24	우호
3		중국 상해시	2010.09.25	우호
4	제주시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 계림시	1997.10.29	자매
5		중국 강소성 양주시	2000.11.04	우호
6		중국 강소성 군산시	2002.11.20	우호
7		중국 산둥성 래주시	1995.12.11	자매
8		중국 길림성 훈춘시	2007.10.17	우호

1) 정지형, 제주와 중국간 경제교류 현황 및 향후 과제, 2013년도 지역경제세미나 발표자료, 2013.7

No	구분	중국 지방정부	체결일자	비고
9	서귀포시	중국 산둥성 용구시	1999.04.20	우호
10		중국 요녕성 흥성시	1996.11.12	자매
11		중국 절강성 항주시	2000.05.02	우호
12		중국 해남성 삼아시	1999.11.19	우호
13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2009.07.07	우호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홈페이지 참조 후 연구자 정리

2) 제주-중국 수출입 현황

2012년 대중국 수출은 263만 달러로 제주의 여섯 번째 수출국으로 전년대비 57.4%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동 기간 대중 수입은 1,193만 달러에서 3,242만 달러로 약 2.7배 증가하였지만, 수출에 비해 수입양에서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제주-중국 교역 현황

(단위: 천불)

년도	수출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비고
2000	246	-	11,927	-	
2001	159	-35.5	10,528	-11.7	
2002	408	156.8	15,358	45.9	
2003	803	96.9	24,062	56.7	
2004	1,041	29.6	15,366	-36.1	
2005	1,300	24.9	20,652	34.4	
2006	782	-39.8	25,485	23.4	
2007	2,080	165.9	19,924	-21.8	
2008	3,057	47.0	14,411	-27.7	
2009	2,492	-18.5	16,379	13.7	
2010	2,455	-1.5	23,272	42.1	
2011	1,670	-32.0	26,812	15.2	
2012	2,628	57.4	32,422	20.9	
2013	682	-	8,667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주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대부분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초콜릿, 유자차, 감귤비타민, 소주, 먹는 물, 화장품 등이 있다.

〈표 3〉 2012년 대중 주요 농·수·축산물 수출품목 현황

(단위 : 천불)

품목별		'12 수출액(천불)	비고
농산물	심비디움	17,20	
	초콜릿	269,47	
	유자차	34,52	
	한라봉차	2,89	
	먹는물	284,16	
	소주	27,35	
	감귤비타민	34,69	
수산물	활납치	13,37	
	찐뚱	212,25	
	건조해삼	29,89	
	해조류	37,16	
축산물	우유	39,56	
제조업	화장품	234,79	

자료 : 내부자료 연구자 정리

3) 제주의 중국인관광객 현황

현재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관광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제주 입도 중국인관광객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4.5%를 차지하였다. 또한 직항 전세기 노선 확대, 국제크루즈 입항 급증,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제주관광 브랜드 파급효과 등으로 2013년 9월 기준 중국인관광객은 1,522,907명으로 전년대비 81.2% 증가하였다.

〈표 4〉 제주입도 중국 관광객 연도별 증가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중국인 관광객 수	406,164	570,247	1,084,094	1,522,907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57.2	40.4	90.1	81.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자료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12년 제주-중국 간 3,143편의 정기노선이 중국의 8개 도시를 운항하였으며, 여객·화물 및 정기·부정기 노선을 포함하면 총 4,686편이 운항하였다.²⁾

3. 對중국 교류 강화 방안

제주는 이미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맺으며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교류협력은 중국의 지역적 특성 및 중국의 급속한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 왔거나, 단순히 인적교류나 자매결연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어 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의 경제적 이익, 신흥시장 확보,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는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인적 교류의 활성화, 중국 시장진출, 교류 지원을 위한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서귀포시의 우호도시인 항주시는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소비도시이므로 이들과의 지속적인 행정·인적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제주가 교류하고 있는 자매·우호 도시 이외에 제주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국 지방도시와의 교류가 많아져야 한다. 또한 북경 이외의 시장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제주 비즈니스센터의 추가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둘째,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초기 마오쩌둥(毛泽东) 시기 '내륙우선전략'을 실시하였으나, 1978년 12월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에는 소위 '선부론(先富论)'으로 대표되는 동부 연해 중심의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선회하였다. 200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한 내륙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동부 연안지역에서 벗어나 지역 간 발전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부대개발, 동

2) 이외 부정기 노선이 광저우, 충칭, 창사, 청두, 푸조우, 후허하오터, 허페, 하얼빈, 난링, 천진, 타이유안, 윈저우, 우시야우팡, 서안, 연대, 란저우 등 16개 도시를 768회 운항하였음.

북진흥, 중부굴기(中部崛起) 등 각 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지역은 계획경제하에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실시된 동부 연안지역 발전,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등 국가 차원의 지역발전계획에서 배제되어 발전 속도와 수준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뒤처지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낙후된 중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6년 ‘중부지역 굴기 촉진에 관한 의견’과 2009년 ‘중부지역 굴기촉진규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부 내륙을 ‘내수시장 발전지역’으로 지정하며 내놓은 정책이다. 호북(湖北)성을 비롯해 호남(湖南), 하남(河南), 강서(江西), 산서(山西), 안휘(安徽) 등 6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지역의 인구는 3억5,000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2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호북성 성도(省都)인 우한시(武汉市)는 상주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중부지역 최대도시로 중국 7대 도시 중의 하나이자 정치, 경제, 문화 및 교육의 중심도시이다. 중부지역의 주요 도시인 정주, 합비, 장사, 난창이 반경 500km 이내에, 북경, 상해, 천진, 광주, 중경, 서안 등 중국의 대표 도시들이 반경 1,000k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장강(长江) 중하류의 교통 요충지인 동시에 중국 내륙지역으로 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4대 발전지역의 변화에 따른 지역적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 각 지역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은 신흥부유층의 증가, 위안화 절상에 따른 구매력 상승, 도시화, 중산층의 증대 등으로 중국 소비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단일한 시장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대도시 및 지역 간 문화와 시장여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별, 연령별 등의 소비자 세분화에 따른 시장분석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시장조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 자료 수집 시 애로 사항이 많은 점, 각 지역의 정책방향 및 시장구조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절실하다. 최근 중국 연구기관들은 한국과의 교류협력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및 국제무대에서의 높은 위상으로 인해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중국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제주의 지리적 조건은 국내의 다른 지자체 연구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연구원과 MOU 체결 및 학술교류를 진행하였고, 중부 지역의 핵심도시인 무한의 호북성 사회과학원과의 학술교류를 진행하였다. 또한 무한시 사회과학원과 정기적인 학술교류,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방문학자 파견 등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내륙지역 연구와 제주와 북경, 제주와 호북성 간의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문화교류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신뢰증진과 관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역사분쟁, 중국 불법조업 등으로 인한 돌발사건 등 양국의 국민 감정을 자극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다. 이는 양국 간의 신뢰 및 상호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상황을 보듯이 한중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할 시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2013년 9월 기준 제주입도 외국인관광객은 190만 여명으로 이 중 중국인관광객은 152만 여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한중관계 악화로 인해 중국정부의 제주관광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약 4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양국 주민의 친선과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학생교류 강화가 더욱 더 필요할 것이다.

4. 결론

현재 對중국 교류는 협력대상지역이 매우 협소하다. 행정·인적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의 지역별 거점화에 따른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34개 성급 행정구역(4개 직할시: 북경, 천진, 상해, 중경, 23개성(대만 포함), 5개 자치구)과 333개의 지(地)급 행정구역, 2,853개의 현(縣)급 행정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고 있는 중국의 지방정부는 아주 미미하며, 대상지역 역시 동부 연해지역과 동북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중국의 중서부 및 남부의 대부분 지역이 아직 미 교류 지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제주는 우선,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에 경제적인 이익 확보차원의 교류강화가 필요하며,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양국간의 우호 및 신뢰증진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셋째, 중국의 지역발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넷째, 기존의 보편적인 교류형식에서 탈피한 상호 실용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중국 연구

기관들과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한 형식으로 교류방안을 도모하고, 점차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는 중국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경제가 발달한 중국의 대도시와 동부 연안지역이 중요한 지역이기는 하나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서 타 지역에 대한 교류의 활로를 개척한다면, 급변하는 중국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일 수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는 분명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참 고〉

제주특별자치도 : www.jeu.go.kr

제주시청 : www.jeusi.go.kr

서귀포시청 : www.seogwipo.go.kr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한국공항공사 : www.airport.co.kr

한국경제신문 : www.hankyung.com